

데스크 시각

열정 유니버시아드, 이젠 문화전당



박치경 편집부국장

‘잔치’는 끝났다. 12일 동안 세계 젊은 이들의 열정으로 달궈졌던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는 흥겨운 축제판이었다. 광주에서 나눴던 우정과, 처음 맛보았던 독특한 남도문화는 이방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됐다.

막이 오르기 전엔 걱정도 있었다. 남북 화해의 전령사로 기대했던 북한 선수단은 끝내 광주 땅을 밟지 못했다. 뜻밖의 ‘북병’ 메르스로 가슴 졸이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 시민은 대만했다. ‘대동(大同)과 배려’로 광주를 찾은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다. 가난한 나라의 선수가 유니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곧바로 성금이 모였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제 몸 돌보지 않는 이들도 부지기수였다. 품격 높은 ‘광주정신’

으로 대회를 성공시켰다는 안팎의 찬사가 이어졌다.

사실 지역의 입장에서 유니버시아드 같은 ‘메가 이벤트’를 유치한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 지구촌에 지역을 알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목적이다. 가장 큰 핵심은 행사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참여와 배려로 이룬 성공

지방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대회가 얼마나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었는지를 따져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02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나뉘어 열렸던 한일월드컵을 돌아보자. 수천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새로 짓고 몇 차례의 축구 경기 후 광주는 무엇을 얻었는가. 물론 당시 신축된 월드컵경기장은 이번 2015 U대회 주경기장으로 쓰여 대회 진행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매머드급 경기장이 들어간 도만큼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다행히 2015 유니버시아드는 ‘절약 대회’로 지리했다. 새로 지은 경기장은 남부대의 국제규모 수영장, 진월동 테니스장, 광주여대의 종합체육관과 양곡장 등이

다.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전남·북, 충북까지 찾아가 시합을 벌이며 돈을 아끼는 지혜를 발휘했다. 새로 만든 시설들도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사용된다니 다행스럽다. 지난해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에는 4700억 원을 쏟아부음으로써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왔다. 이후 주경기장 운영비로만 연간 수십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케이스와는 대조적이다.

또 하나의 성과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다. 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들은 환벽당의 정취랄지 또는 한정식의 맛 등에 매료됐다. 곧 ‘남도문화’가 세계에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 것이다.

또 다른 축제의 문 여는 열쇠

유니버시아드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개관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일부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지만 문화전당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건물로 꼽히는 전당을 제대로 굴릴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호랑이를 꿈꿔야 고양이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아시아 문화수도론 꿈꾸는 만큼 이에 걸맞은 규모로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조바심도 숨기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이 미지근해 전당을 꾸러 갈 돈과 사람이 태부족일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됐다. 덩치가 산만 한 집을 세워 놓고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목수는 돈과 시간, 기술만 있다면 얼마든지 큰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를 올리는 것도 너끈하다. 그렇지만, 고대광실(高臺廣室)의 칸을 채우지 못하고 텅 빈 뷔외 둔다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

모든 난관을 해결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몫이다. 정부의 도움도, 외지인의 조인도 꼭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유니버시아드 이후 문화전당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한 치방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U대회를 성공시켰던 참여정신으로 지혜를 발휘한다면 전당을 세계 명소를 가꾸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또 다른 축제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다. /unipark@kwangju.co.kr

은편칼럼

호남개혁정치 복원의 방향



최영태 전남대 교수·역사학

버리자 시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를 이용만 하지,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굳혔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무엇보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 이 지역에 토대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서는 다음 4무(無) 현상이 상기된다. 첫째는 광주 정신에 대한 공감도의 부족이다. 둘째는 의정활동의 부진이다. 소위 ‘스타 의원’이 없다. 셋째는 지역발전에 대한 헌신도가 부족하다. 이런 현상은 집권시절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넷째는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 이 4무(無) 현상의 근본 배경은 경쟁이 없는 선거구도와 관련이 있다. 소위 ‘물지마 투표’는 국회의원들에게 유권자가 아닌 당권 주변만을 맴돌게 하여 자신의 실력을 쌓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게을리 하게 만들었다.

보궐선거가 끝난 후 신당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새로운 정당이 출현한다면 그것은 전국 정당이는 지역 정당이든 결국 호남에 토대를 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이미 퇴장했거나 퇴출 대상인 정치인들이 신당에 몰려

들어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복원·연장하는 구명줄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서 안 된다. 그런 퇴행적 성격의 신당은 호남정치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야당 내에서마저 호남고립화를 낳을 것이다.

신당이 출현한다면 그것은 호남개혁정치 복원에 기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대적 발발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한다. 또 하나 비전과 가치가 뒤따라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은 민주주의와 복지, 평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호남자발의 시장)이라는 비전과 가치를 토대로 결합했다. 만약 신당이 4무(無) 현상의 근본 배경은 경쟁이 없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현의지를 가진 정치세력의 발발이라는 질적 목표를 우선시해야 한다. 그래야 호남개혁정치의 복원과 전국적 차원에서 야당의 개혁적 성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아직 실체도 없는 신당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려할

점이 없지 않다. 신당에 대한 지나친 감성적 몰입현상과 또 다른 유형의 ‘물지마 투표’가 등장할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또 다른 ‘4무(無) 현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기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로운 정치결사체, 진보정당, 새누리당 등이 각각 좋은 후보를 추천하여 선의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정당보다는 국민과 지역에 헌신할 보다 유능하고 정직한 대표자를 맞이할 수 있다. 이 지역에 새로운 개혁적 정치결사체가 출현하고,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분위기에 자극받아 환골탈태함으로써 호남에 새로운 정치지형이 형성되면 좋겠다. 지금부터 이 지역에서 호남개혁정치의 복원과 지역의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정치문화를 도약시키는 운동과 분위기가 조성작업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광주



안용훈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서 기업유치는 구세주나 다름이 없다. 당장 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고, 인구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기업유치는 지역개발 측면에서 볼 때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기업유치’에만 국한된 정책으로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기업유치는 ‘기업 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투자, 인력확보, 제품 수송, 판매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문화·복지시설 및 교육여건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최우선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지역민의 단합과 화합이라는 정치적 자산 등 다양한 여건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었을 때 성공적인 기업유치가 추진될 수 있다.

올해는 광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해이다. KTX개통,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빛가람 혁신도시 본격 입주와 같이 우리 시의 성장 동

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3월 필자는 2015 광주 U대회 개막식에 참여했다. 6년여 동안 준비해온 U대회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장면을 보며 우리 광주의 자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광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생겼다.

이제 우리 광주의 자력을 지역경제 발전·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게 되고, 16개 공공기관의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및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미국의 실러콘밸리와 같은 ‘빛가람 에너지밸리(Energy Valley)’로 만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까지 첨단기업 500여 개를 유치해 에너지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밸리의 기업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지역의 기업 유치 전망이 밝아졌다.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인지도조금, 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우리 시가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 내에 ‘에너지밸리 특구 범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방안 등도 수립해야 한다.

기업유치는 행정, 시민,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행정에서는 섬세한 투자유치 전략과 기업운영까지 도와준다는 마음을 갖고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시민들은 입주기업에 대한 대중적 수용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기업도 시민들을 회사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소통과 융화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이뤄 내야 한다.

지금 우리 광주시의 기업유치에 관한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과 시민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성공적인 기업유치가 광주의 미래성장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실체도 없는 신당에 크게 밀린 새정치연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의 이탈이 심각하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실체도 없는 신당’에 큰 차이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의 의석을 건질 수 있는 곳은 호남에서조차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이 최근 도민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와 그런 전망을 가늠케 한다. 조사 결과 새정치연합은 실체도 없는 신당에 14.7%포인트나 뒤졌다. 그나마 22개 시군 가운데 신당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지역은 딱 한 군데뿐이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1곳의 지역구 가운데 10곳에서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북발 새정치연합 위기론’이 촉발되기도 했다. 광주의 경우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전남·전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광주 또한 그동안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판 정서가 전남·북에 비해 더욱 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호남 민심의 이탈은 현재의 야당으로는 정권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올 4·29 재보선 등 연이은 선거 패배에 도 친노와 비노가 패권을 둘러싸고 당내 내홍을 거듭하는 모습에서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신당 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새정치연합으로서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참담하고 부끄러운 것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혁신 과제는 다 드러났다. 계파 해소와 기득권 내러놓기, 당 정체성 정립 등이다. 혁명적 개혁으로 정통 야당의 경우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세월호특조위 씹질만...진상은 언제 밝히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내홍에 빠졌다. 조 대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은 사무실에 2주 넘게 출근하지 않다가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어제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특조위가 6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진상규명할 내용이 없으므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침묵 원인은 어느 정도 밝혀져 다 해도 아직 관료 조직과 부실기업의 유착 관계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으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 이 위원장의 항변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출범 단계부터 조직과 예산 문제로 정부와 대립하더니 이제는 내분까지 겹친 상황이다. 이 같은 내부 갈등은 당초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 작년 11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특조위의 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

하고, 대위원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씩, 유족이 3명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향이 다른 인사들로 조직이 구성되다 보니 잦은 충돌로 세월호만 허송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이 위원장과 조 부위원장 간 갈등은 특조위 파행의 주범이었다. 진보 성향의 이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유족들의 추천을 받았으며, 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조 부위원장은 보수 성향이어서 두 사람은 사사건건 의견이 맞섰다.

이렇게 되다 보니 세월호 특조위는 개집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동안 예산 배정과 조직 구성을 논의하는 단계부터 양측이 대립하며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사안이 어찌 됐든 세월호 특조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인식하고 하루빨리 진상규명 활동에 착수해야 한다. 더 이상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으로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얘기다.

無等鼓

헤지펀드는 증권이나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차익을 올리는 투기자금을 말한다. 말 그대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기법으로 만들어진 개념에 손실을 막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손실을 막는다는 것은 역으로 이익의 극대화란 말과 상통한다. 헤지펀드의 목적이 ‘이익추구’로 종결되는 이유다.

헤지펀드를 흔히 이리저리 때려 부딪고 굶주린 이리저리 때려 달려들어 기업들 물어뜯는다는 데서 유래했다. 공격 대상을 장기간 관찰하다 허점이 발견되면 집중 공격하는 이리때의 습성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헤지펀드에게 한국 기업들은 좋은 사냥감이었다. 첫 피해자는 SK텔레콤이었다. 미국계인 타이거펀드는 1999년 SK텔레콤의 지분 6.6%를 취득한 후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다 SK 계열사에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해 6300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2003년 4월에는 소비러인이 SK글로벌 분식회계 문제로 그룹이 혼란한 틈을 타 지분투자사적인 SK(주)의 주주 15% 가까이 매입했다. 소비러인이 2년 2개월 만에 주식 매각을 통해 올린 수익은

9300억 원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은 430%였다. 2006년에는 갈 아이칸이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KT&G를 공격해 추가 부양책을 요구하며 10개월 만에 1400억 원을 벌고 떠났다.

이런에는 삼성그룹이 타깃이 되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하며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임시주총에서 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논리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 경쟁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언론은 ‘먹튀론’을 들어 국부 유출을 경계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 후면 삼성그룹의 3세 경영 승계에 제동이 걸릴지 여부가 결정된다. 캐스팅보트는 말 없는 소액주주(개미투자자)들이 쥐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투명 경영, 주주 친화 정책의 계기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